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5월 3일 (제79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진정한 행복이란?

인생은 장강유수(長江流水)라 하지 않는가. 물 흐르듯 살라는 뜻이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듯 우리 인생도 이 땅에 떨어져 굽이굽이 부딪치며 계곡을 지나 강을 거쳐 바다에 이르러. 어언 70 고개, 바다에 이르러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 꿈꾸는 것 같구나!

그간 죄악이라는 놈과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라는 놈 때문에 많이 지쳤다네. 첫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둘째는 육체의 정욕, 셋째는 이생의 자랑, 뉘를 3인방 이놈들과 싸우는 덕분에 깨달음도 많았지. 또한 내 주위에서 맴돌며 나를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미혹도 있었네. 그것이 잔디밭으로 알고 밭을 들어놓았더니 높이었네. 그 속에서 누구하나 돕는 자 없어 울부짖고 몸부림쳤지.

들어도! 보아도! 먹어도!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미혹. 이는 욕심의 다른 얼굴이었네. 권력, 명예, 재물, 이성... 미혹이란 놈과 싸운 덕분에 욕심이란 놈이 사망의 자식이요, 결국 사상누각(砂上樓閣)이란 것을 알았고, 이보다 더 큰 허물이 없음도 알았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털고 다시 시작하려네. 앞으로 후회 없는 30년!

여보게~ 젊은이! 친구여!知足상락(知足常樂)이라는 말이 있네. 만족할 줄 알면 인생이 즐거운 것이라네. 그러니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자네가 서 있는 땅이나 기쁨지게 하게나. 그것이 제일 멋지고 행복한 삶이라네. 또한 후회 없는 삶이지. 머리에 눈 내리는 초겨울의 나이에 깨달음이 이것이라네. 위상, 돈, 명예, 권력, 이성, 다 놓고 갈 것이 뭐 길래... 하하하하...,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일까? 생각해보게나.

여보게, 자네들은 속지 말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나.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삶이라네.

내 머리에 서릿발을 보며
2015. 4. 22 장성기도원에서 朋友 이초석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지난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집회는 세부 국립학교 안에 있는 농구코트에서 진행되었다. 유상진 목사가 벨슨(Nelson) 교장에게 요청하여 주일예배 장소로 쓰이고 있는 곳이다. 세부 예수중심교회는 민가지역 안에 있는 교회와 세부 국립학교의 농구장, 이렇게 두 장소를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약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고 한다.

세부 국립학교의 교장인 벨슨(50세)은 장학생으로 졸업하여 최연소 교장이 되었다. 그는 이번 집회에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부 교회를 돕고 있

게 되는 것이 결국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배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혁신이 요구된다.

목사님은 세미나를 통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착상, 꿈을 키우는 믿음, 상상력..., 이는 결국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가는 과정에서 성장해

살다며 유상진 목사와 연락하여 함께 찾아오면 정성껏 대접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유상진 목사에게는 한국어학당을 개설하여 학생들 중 1년 안에 탁월한 진보를 보이는 학생은 한국으로 초청하여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겠다고도 약속하셨다. 또한 함께 간 장로들이 사업가들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지역에 일자리가 양산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벨슨 교장의 눈이 커지는 것 같았다.

필리핀에서는 동장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목사님은 지역 동장과의 관계를 잘 만들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중식당에서 오찬을 마치고, 목사님 왼쪽의 녹색 옷이 벨슨 교장)

다고 한다.

목사님은 도착 이튿날, 집회 준비 과정에서 유상진 목사로부터 벨슨 교장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는 벨슨 교장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가 먼저 세부 예수중심교인이 되게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 그를 활용하여 이 학교 학생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라고 독려했다. 세부 국립학교 학생 전체를 전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한다면 세부를 건지는 일은 거뜬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목사님과 다니며 늘 깨닫는 바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나아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목사님은 아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생각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신다. 그런 목사님을 보며 스스로 깨닫

가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꿈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목사님은 벨슨 교장을 중식당으로 초치하여 함께 세부, 필리핀을 살펴보라고 역설하셨다. 그로서는 차에 타라는 말을 듣고 영겁결에 올라탔는데,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가히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진행되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중국음식에 벨슨 교장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어린 시절에 하도 가난하게 자라 제대로 먹지 못하다보니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한다고 했다. 일견 가슴이 찡한 발언이었다.

목사님은 벨슨 교장을 한국에 초청하고

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간접자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하셨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자, 신문, 방송들을 잡아 일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힘든 일들도 지렛대, 곧 간접자본을 잘 활용하면 몇 배 이상의 큰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지혜가 제일이다.”

세부 교회가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신대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통해 필리핀을 제2의 멕시코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파나마 집회

4월 28일(화) ~ 5월 8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2:9)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복, 복 하는 목사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조심하라는 그 목사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 받지 않으려면 뭇 하려 교회에 옵니까? 복이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소경에게 복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앓은뱅이는 일어나 걷는게 복이고,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이며, 외로운 자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벌에 처할 자에게 가장 큰 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눅4:18~19).

그런데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뭇자리를 잘 써서 옵니까?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 살아야 옵니까? No.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령한 복(엡1:3)은 물론 인생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히6:14).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복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림으로 입증하고, 확정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할 때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겨자씨 한 알을 심으면 큰 나무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겨자씨 한 알을 심고 큰 나무가 되는 복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둥이 난 과부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 했습니다. 그 무렵 그 집에 들린 엘리야가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무척 갈등했지만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에게 그 떡을 넘겼습니다.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왕상17:14)는 복이 임했습니다. 발립보서 4장에 마게도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아고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비를 받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헌금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축복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란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면 일천 번제에는 소 천 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은을 돌덩이처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왕상10:23~27).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대하1). 무엇이든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전자전(父傳子傳), 솔로몬이 이렇게 심은 것은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웠기 때

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몸소 먼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 이 모든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대상29:2~5). 이렇게 엄청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매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대상29:28)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물질’임을 세리 삭개오가 잘 보여줍니다. 예수를 모신 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눅19:8)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더니 생명보다 귀히 여긴 재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눅19: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액수나 양(量)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과부가 두 렵돈을 연보궤에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눅21:3~4). 과부는 겨우 동전 몇 개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심은 주님이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 때

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심을 마음이 있으면 씨도, 심을 동안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노에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노에

옥함을 깨트린 마리아(막14:3~9), 예수를 섬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눅8:3),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루디아(행16:14)…, 모두 심어 많은 것을 거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심으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 것에도 법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미리 준비하여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둘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고후9:7). 셋째, 계산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여 주십니다(눅6:38). 넷째, 심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헌금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왜요? 혹시 성도들이 싫어할까봐서요.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먼저 심지 않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 심으니 온 백성들이 즐겨냈던 것입니다(대상29:9). 세계를 다녔다면 목회자들이 가장 인색합니다. 아니 목사라고 심고 거두는 법칙에 예외일 수 있습니까? No. 부득불 자랑한다면, 제가 오늘날 부족함이 없는 것은 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 문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나고, 많이 심어야 많이 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풍성한 자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듯 사랑과 물질도 함께 일한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고 하시고, 그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하였음이니라”(창22:17~18)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심으면 얼마나 주시나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13:31~32). 콧바람에 날아가는

::객원칼럼::

항해인생과 표류인생

바다에 떠 있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항해’하는 것과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항해’는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진 행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표류’란 목표도, 의지도 없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인생도 항해(航海)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 표류(漂流)하는 인생이 있다. 항해하는 삶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목표로 하는 항구에 가면 안식을 얻고, 또 새로운 항해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류하는 삶, 떠밀려 다니는 인생은 유혹 앞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고난 앞에서도 쉽게 굴복하고 만다. 나아가야 할 목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개개인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근자에 한 기업인이 작성한 몇몇 정치인 리스트로 인해 온 나라가 들쭉거리고 있다. ‘설마하니...’ 여겨졌던 것이 단지 소문과 의혹을 넘어 거짓과 협잡의 정황으로 드러나 정치권이 들끓고 법조계가 술렁대고 있다. 일개 메모에 불과하던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 정국을 강타할 비리 게이트로 일파만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향해야 할 뚜렷한 비전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단지 그때그때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이익과 욕망에 따라 그저 이합집산을 무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일부 정치

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망신을 당하는 것도, 몇몇 법조인들이 더 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다 국민의 눈총을 받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우리 신앙인들마저 이 세상의 권세와 명리를 탐하는 헛된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영원을 바라고,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는 우리들이 말이다. 우리만이라도 구분되어야 한다.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땅위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인생은 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오직 믿음과 착한 행실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줄 것이다. 지금 당신은 성경이 가리키는 항로를 따라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일본과 미국 사이, 태평양 한복판에는 한반도 6배 크기의 섬이 무려 두 개나 존재한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부터인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다. 말이 섬이지 사실은 그저 쓰레기더미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흘러들어 이렇게 섬 모양을 이루었다. 말 그대로 쓰레기 섬... 목적 없이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의 끝이 바로 이리하지 않을까?

다시 물었다. 당신은 항해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표류하는 인생인가? 항해하는 인생이라면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어머니



우리 어머니 미수(米壽), 내 나이 어언 70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나 드나보다.

어느 날, 장사익의 ‘봄꽃 놀이가요’ 가슴을 파고든다.

아들 등에 업혀 고려장 지내려 가는 어머니, 깊은 산 들어갈 때 솔잎을 뽑아 뿌리니

“어머니, 솔잎 뿌려 머 하신대요? 머 할라고 그러쇼. 업니, 머 하는 거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때 길 잃을라, 솔잎 보고 찾아가라.”

이 마음 누가 알까? 이제 나 알 듯하니 노래 듣는 내 눈에 눈물이 강물 되고, 그 사이로 어머니 모습 보인다.

이 나이에 무엇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7남매, 어머니 모시고 강화로 고기 잡으러 갈 때 등산복을 한 벌 입혀드리고 싶어 사가니, 넷째 동생하는 말,

“형, 거동도 불편하신 어머니에게 등산화, 등산복이 웬 말이요, 등산모에 선글라스가 합당하오?” 한다.

“이놈아!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한 번 입은 모습만 봐도 내 여한이 없어서다”

그런데 어머니는 웃을 입고 좋아라 어린애처럼 뛰신다. 우리 칠남매, 옛날 고기 잡듯 웅덩이 물을 꾸며 물 텃병 치자, 어머니 의자에 앉으신 채로 좋아하시니 꼭 어린애다.

누군가 말했다지. 나이 들면 어린 애가 된다고. 나 역시 저리 되겠지!

어머니 모습을 보니 불현듯 세월이 야속키만 하다. 하지만 누가 인생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여보게!

이리저리 핑계대지 마소.

나무가 가만히 있어주면 좋으련만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듯이 효 한 번 해보겠다는데 부모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니 눈 감고 조용히 부모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

큰 것이라야 효겠나, 그저 부모 마음만이라도 헤아려보시게.

지금이 효도할 때요, 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나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처럼 눈물 뿌리지 않으려면.

朋友

효는 아름다운 것!

여보게!

요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다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내가 세계 여행이라도 다니는 줄 알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가신 송 장로님 맥의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네.

벌써 작년 일인가? 갑자기 송 장로님의 아내인 박 권사님이 쓰러지셨네. 의식불명의 상태였지. 그래서 응급실로, 또 중환자실로 옮겨져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네. 워낙 연세도 있고 해서 의사들조차도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다네. 그런데 박 권사님의 아들, 딸, 며느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노라며 돌아가면서 밤을 새는 등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더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닌 듯하네.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지극정성을 다해 간병을 하니 박 권사님이 호전되어 말도 하고, 거동도 하게 되었다네. 나는 그네들을 바라보면서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지. 다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곤한 내색 한 번 없이, 귀찮은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매일 병원으로 번갈아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마음에 하나님도 감동하셨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네. 물론 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나오셨겠지만, 자식들의 효에 하늘도 탄복했으리라는 믿네.

여보게!

내가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네. 바로 우리 제수씨라네. 이시대 목사안 사람 말일세. 내 동생이지만 이시대 목사님과 제수씨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신다네. 큰 아들인 내가 모셔야 마땅하지만, 형편상 셋째인 이시대 목사내외가 모시는데 그들은 모든 것이 어머니 위주라네. 너무 감사할 뿐이지. 그러니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네.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 하는지...

성경에는 ‘효도하라’는 말 대신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놓으셨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5:16).

나오미의 며느리인 룓이란 여인을 알지? 그녀는 이방여인으로 유다지파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으나 남편이 죽자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

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었고, 다윗의 선조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주셨지. 우리 예수님도 엄청난 효자였다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접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은가. 또한 돌아가시기 전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다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아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축복을 누렸지.

요즘 부모와 외국에 여행하러 가시는 거기에 부모를 놓고 오는 사람도 있고, 부모 몰래 이사해버리거나 이민을 가는 자들도 있다더군. 늙은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로 싸우다 형제를 살인하는 일도 있고,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네. 미물인 짐승도 제 부모에게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 하세나.

朋友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거리마다 사원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들로 넘쳐 ‘신들의 땅’으로 불리던 네팔이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평온한 주말 한 낮에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은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네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는 두 쪽으로 갈라졌으며, 나무가 뿌리째 뽑힌 가운데 먼지구름이 사방을 뒤덮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5천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는 무려 6조 원 가량의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네팔이란 나라가 원래부터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던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는데, 이번 지진의 여파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7곳 중 4곳이 크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관광지로써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 프랑스 연구진이 이 지역에 이 정도 규모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예측했었고, 일주일 전에는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지진이 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대비책을 연구하자는 회의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화를 더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처럼,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경고에 반응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예수중심교회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이번 춘계산상집회에서 단에 선 교육전도사 4인방!
그들에게서 우리는 예수중심교단의 미래를 보았다. 그들의 거칠 것 없는 포부를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신혁주 전도사, 선동호 전도사, 이현승 전도사, 이정금 전도사

기자: 이번 춘계산상집회에서 설교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금 전도사: 먼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이초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불드심과 우리 목사님의 믿음과 기도가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그릇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심장 떨리는 기쁨과 짜릿함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몸소 체험하며 만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동호 전도사: 어리고 약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대성전 단에 서서 '나도 언젠가는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인가 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목사님께서 많은 목회자 분들 중에 작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육국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전도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기도원 리모델링 공사 때 최선을 다해 일을 했더니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증거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앞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목사님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큰 응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가슴에 새겨 지금 제게 주어진 일과 앞으로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목사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전도사: 먼저 작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단에 세워 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상집회에서는 오전예배에 교육전도사들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총회장 목사님께 있어서

혁신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집회를 오신 많은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냥 그곳에 온 분은 없기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를 감동에 따라 지명하시며 단에 세우시고는 말씀을 전할 그 분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를 닮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도님 중에 목사님을 닮은 정치가, 기업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총회장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괴로운 길이거나 외로운 길이거나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어디서나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총회장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교육전도사들이나 예수중심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2, 3세대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아직 깊은 성경 지식도, 다양한 목회 경험도, 뛰어난 말주변이나 적극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하고 어린 종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과연 내가 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입이나 제대로 뿜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세워 주신 강단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유와 자신감은 준비한 자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기회를 주신 총회장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를 붙잡아주시고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눈과 귀와 마음 문을 넓게 열도록 해 주셨기에 그 강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단에 서면서, 정말 주의 종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놀라

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간단히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이정금 전도사: 20년 전 초창기 교육전도사 시절 여름성경학교 세미나에서 어떤 강사님이 "여러분은 혹시 '요나단 신드롬(Syndrom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 아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비참한 파멸로 이끈 모세의 손자 요나단(삿18:30)에서 딴 이름이지요. 모세 할아버지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고 율법을 주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면, 그 손자 요나단은 자유한 백성들을 사로잡혀가게 만들고 율법을 파기하고 복 받은 땅에서 백성을 온 세게로 흩어버린 민족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신드롬'이란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해서 영적인 대(代)가 끊기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교육전도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시기 좋은 사람으로, 우리 목사님이 각 분야에서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기초를 잘 닦아 놓는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싶어 23년 동안 사명으로 알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꿈과 비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동호 전도사: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부 예배를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색질병에서 놓임 받고, 새 방언이 임하는 등, 예수중심 2세대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 대학부와 부족한 제가 있는 것이 그 꿈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의 사역처럼 보여주는 목회를 하는 것이 그 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부가 예수중심교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부흥의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과 모험을 통해 약속된 미래를 이뤄가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현승 전도사: 저는 예수중심의 2세대로서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눈으로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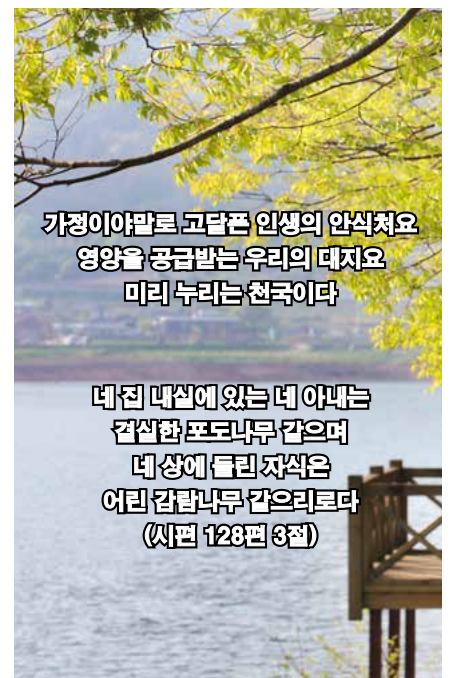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인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중심의 2, 3세대가 앞에서 본을 보이신 총회장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삶, 행함의 삶을 살길 바라시며,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이 되도록 저부터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저는 지금까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順從)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미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사명(使命)의 여정에서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과 목사님께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부해라. 책을 많이 읽고 신문을 읽어야 한다. 일기를 써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이제 더 많은 눈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이 사명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감당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공부하며 경험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더욱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가정아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영양을 공급받는 우리의 대지요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검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사편 128편 3절)